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15

글.
조인준 KBS 기술연구소 차장

몇 년 전부터인가 여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장마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폭우가 빈번히 반복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장마 후에는 높은 습도를 동반하는 찜통더위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높은 습도 때문인지, 창문을 모두 열고 선풍기를 돌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습도로 인한 짜증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기조차 힘듭니다. 매일매일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로 인해 수면조차 힘든 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왜 맥락 없이 오래된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오르는 것일까요? 무슨 영화냐고요? 70년대 후반 청춘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영화, 세계의 젊은이들을 디스코텍으로 이끌었던 영화, 바로 ‘토요일 밤의 열기’, 영어 원제로는 ‘Saturday Night Fever’입니다. C군의 연재를 몇 번 읽은 경험이 있는 독자분이라면 스멀스멀 냄새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놈아가 지금 Fever를 가지고 영단어 어원풀이를 시작하려는 속셈이구먼...” 하고요. 매번 상투적인 일상의 이야기로 시덥지 않은 썰을 몇 줄 풀다가, 이야기 중에 나온 단어 하나 잡아서 토픽의 기적적인 양자점프를 통해 맥락 없는 화제 전환을 이루어내는 짜증 나는 기술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 C군 본인조차도 겸연쩍은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얹힐려진 물... 앞으로는 맥락 없는 화제 전환이 아닌, 좀 더 세련된 선진기법으로 부드러운 화제 전환을 통한 즐거운 영단어 어원풀이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Fever

어원 : 라틴어 febris(fever)

Fever는 ‘열, 열병, 흥분, 열기’ 등 뜨거움과 관련된 뜻을 가지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열, 열병’을 뜻하는 ‘febris’입니다. 로마신화에 ‘페브리스(febris)’라는 여신이 등장하는데 이름 그대로 ‘열, 열병’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신은 사람들에게 열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열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Fever의 앞 세 글자 Fev와 febris의 앞 세 글자 feb가 웬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틴어나 그리스어 등의 어원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단어와 그 어원의 연결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초점을 두시어 기억의 편의를 돕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Fervid

어원 : 라틴어 *fervidus*(glowing, burning) - 라틴어 *fervere* (to boil)에서 파생

Fervid는 ‘열렬한, 뜨거운, 불타는’ 등의 뜻을 갖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끓다’는 뜻을 가진 ‘fervere’에서 파생한 ‘fervidus’입니다. 뭔가 막 복잡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소중한 시간을 뺏기시는 것 같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나 그리스어 어원 자체에는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Fervid의 뿌리에 해당하는 ‘fervere’와 앞서 설명한 Fever의 어원 ‘febris’를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fervere’와 ‘febris’의 앞 세 글자가 닮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뜻도 하나는 ‘끓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열, 열병’입니다. 두 단어가 서로 ‘열’이라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죠? C군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fervere’와 ‘febris’의 연관성을 열심히 검색해보았지만,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 확실하고 명백한 관계를 증명해주는 자료는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두 단어가 강력히 연관된 단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C군의 추측처럼 이 두 개의 라틴어 단어가 연관이 되어있다면, 이들과 연관된 영단어들인 Fervid와 Fever도 뿌리를 통해 연결이 되어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뜻도 ‘열렬한, 뜨거운, 불타는’과 ‘열, 열병, 흥분, 열기’로 뭔가 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C군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C군이 소개하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어원들을 기억하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어원으로 엮인 영단어들을 서로 연결하여 기억을 돕는 것에 더 신경 써주시지 바랍니다.

Fervor

어원 : 라틴어 *fervere*(to boil)

Fervor는 ‘열정, 극심한 더위’ 등의 뜻을 갖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끓다’는 뜻을 가진 ‘fervere’입니다. 어원의 뜻인 ‘끓다’와 Fervor의 뜻인 ‘열정, 극심한 더위’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잘 통하므로 추가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Fervent

어원 : 라틴어 *fervere*(to boil)

Fervent는 ‘열렬한, 격한, 뜨거운, 타는 듯한’ 등의 뜻을 갖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끓다’는 뜻을 가진 ‘fervere’입니다. 어원의 뜻인 ‘끓다’와 Fervent의 의미가 매우 자명하게 연결되므로 별다른 어원풀이 없이 끝내겠습니다.

Effervescence

어원 : 라틴어 *fervere*(to boil)

Effervescence는 ‘끓어오름, 거품이 일, 활기, 흥분’ 등을 뜻하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out’의 뜻을 가진 라틴어 접두사 ‘ex-’와 ‘끓다’는 뜻을 가진 ‘fervere’입니다. 라틴어 접두사 ‘ex-’는 아마도 발음 등의 이유로 ‘ex-’ → ‘ef-’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어원의 뜻을 풀어보면 ‘밖으로 끓어오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끓게 되면 거품이 일고 솔이나 냄비에서 넘치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며 거품이 이는 모습에서 ‘거품이 일’과 같은 뜻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Effervescence가 샴페인 같은 음료에서 거품이 이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로 인해 끓어서 거품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도, 거품이 일면 Effervescence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Effervescence의 다른 뜻인 ‘활기, 흥분’도 펄펄 끓는 모습에서 쉽게 연상이 되므로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시죠? 여러 자료를 찾아 보면 Effervescence의 어원을 라틴어 접두사 ‘ex-’와 ‘fervere’에서 파생된 ‘끓기 시작하다’라는 뜻의 ‘fervescere’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원이라는 것이 추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어떤 것이 어원이라고 정확히 짚어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지난 연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소개하는 다른 영단어들과의 연관성을 고

려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읽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되도록 어원을 소개할 때는 파생된 단어들 대신 뿌리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

Effervesce (Effervescence의 동사형) : 거품이 일다, 흥분하다 등
Effervescent (Effervescence의 형용사형) : 거품이 이는, 활기찬 등

Ferment

어원 : 라틴어 fermentare(to leaven)

- 라틴어 fervere(to boil)에서
파생

Ferment는 명사로는 ‘효소, 발효’, 동사로는 ‘발효시키다’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어원은 라틴어로 ‘끓다’는 뜻을 가진 ‘fervere’에서 파생된 ‘발효시키다(leaven)’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fermentare’입니다. 무언가가 발효될 때는 모양이 부풀어 오르고, 기포가 다수 생기는 것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런 모양이 무언가 끓는 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끓다’는 라틴어 동사 ‘fervere’에서 발효와 관련된 라틴어 동사 ‘fermentare’가 파생된 것이 아닌가하고 C군은 추측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설이 아닌 C군의 추측이므로, 100%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단어 Ferment에 대해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으로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음식 ‘김치’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김치가 매우 우수한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효식품의 영어 표현이 ‘Fermented Food’입니다. 이 이야기에 Ferment라는 영단어가 갑자기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읽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되도록 어원을 소개할 때는 파생된 단어들 대신 뿌리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말이 끝나자마자 ‘fervere’에서 파생된 ‘fermentare’를 어원으로 딱하니 써놔했습니다. C군도 모순 같아 보이는 모습에 살짝 민망합니다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fermentare’의 뜻인 ‘발효시키다’가 ‘fervere’의 뜻인 ‘끓다’와 자명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fermentare’를 밖으로 꺼내어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C군이 한 자 한 자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논리적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부디 알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대충대충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고 오해하실까봐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Homo Faber

라틴어 homo(man) +

라틴어 faber(maker)

인류의 역사를 배우며 ‘도구의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도구의 인간’을 부르기 위해 어느 학자가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homo’와 ‘만드는 이’를 뜻하는 라틴어 ‘faber’를 합쳐서 만든 말이 Homo Faber(호모 파베르)입니다. 라틴어 이름으로만 보면 ‘만드는 사람’인데 왜 ‘도구의 인간’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구 등을 만들어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Homo Faber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를 의미에 주목하여 '도구의 인간'이라고 옮긴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사실 Homo Faber는 어원풀이의 대상은 아니고, 어원풀이를 위한 화제제시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가끔 프랑스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보면 fabriqué en France라는 글귀가 적혀있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fabriqué en France의 뜻은 made in France이며, fabriqué의 뜻이 영어의 made와 동일합니다. fabriqué의 앞 세자 fab가 'Faber'의 앞 세자 fab와 유사하고, 뜻도 '만들다'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니 불어의 fabriqué도 라틴어 어원을 갖고, 이 라틴어 어원이 Faber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abricate

어원 : 라틴어 fabricare(make, build)

Fabricate는 '만들다, 짓다' 등을 뜻하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같은 뜻을 가진 라틴어 'fabricare'입니다. Fabricate의 앞 세자 fab가 앞의 불어 fabriqué와 라틴어 Faber의 앞 세자 fab와 동일하고, 의미도 무언가 만드는 것으로 똑같죠? 이렇게 라틴어로 시작해서 불어나 다른 유럽어, 그리고 영어로 이어지는 연결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럼 간단히 주워먹기(?)가 가능한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Prefabricate

어원 : 라틴어 pre-(before) +

라틴어 fabricare(make, build)

Prefabricate는 '사전에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며, 어원은 'before'의 뜻을 가진 라틴어 접두사 'pre-'와 '만들다, 짓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fabricare'입니다. '미리 만들다'라는 어원의 의미가 그대로 영단어의 의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100% 조립이 아닌 어느 정도 조립된 상태로 포장된 수입품들의 겉면에 보면 'Prefabricated'라고 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트에 가실 일이 있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은 날씨가 편안해진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